

중소기업 중심 환경친화기업 확대

한강유역환경청(청장 이인수)은 '2005년도 환경친화 기업지정제도 운영계획'을 수립하여 기업체의 친환경적 경영정착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환경개선과 경영 달 성 및 선진적인 환경경영기법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로 했다.

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'95년 도입이후 '05년 3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161개소 지정, 그 중 서울·인천· 경기지역에 38개소가 지정·운영되고 있으며, 정부와 기업이 지도단속 등 규제일변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벗 어나,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평 가하고,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을 도모하는 등 친환경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해 왔다.

이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우선 한강유역환경 청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친화기업을 지정·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.

이를 위해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장, 기존 환경친화 기업의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경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경영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, 지정 신청 희망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연결 시켜 환경경영기법 및 신청서류 작성 등에 대하여 컨설 팅을 제공 지원할 방침이다.

아울러 현재 지정된 38개 환경친화기업지정업체에 대하여는 기업별 친환경경영성과를 평가하고, 향후 지 속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기로 했다.

이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친화기업들의 연간 환경개선 이행실적에 대해 각 분야별 환경경영 이 행상태, 환경개선 투자실적, 환경오염물질 현황 등을

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일정 점수 미 달업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며, 환경경 영 및 환경개선이 모범적이고 우수한 사례에 대하여는 금년 6월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환 경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환경기술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.

한편, 환경친화기업을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자율환경관리 협의체 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.

이는 동종·유사 업종간 환경관련 기술 제휴 및 실질 적인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친 화기업 등 우수업체가 동종·유사업체 중 환경관리가 열악한 업소(위반업소 중심)를 선정하여 환경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하 고 친환경경영을 유도하는데 있으며, 이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로 관리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, 관리업체에 대한 평가·분석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12월중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,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도·점검 면제 및 방지시 설 설치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.

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친화기업의 선진적인 환경경 영기법 적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각종 시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구체적으로 지속가능 보고서 또는 새로운 환경보고 서 작성·공개 업체, 정부의 환경경영 기법 적용 시범 사업 참여, 천연버스 차량 도입 기업, 자발적 협약 체결 등의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별도 의 가산점 부여 또는 평가항목의 배점 상향 조정 등 우 대를 강화하고 기존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정부포상을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. 